향토 문화

압해면에서 대규모 구석기 유적 발견

編 輯 者

국내 최초로 섬에서 대규모 구석기 유적이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목포대 도서 문화 연구소는 "국내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최근 신안군 압해면 일대에서 조사를 벌인 끝에 몸돌석기 등을 포함한 구석기 유물·유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압해면 분매, 동서, 신용리 등 8개 지점 24곳 1만여 평에서 구석기 시대에서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유물인 석기 제작소와 지석묘 주거 공간 등 다수를 발견했다.

또 연구팀은 이번 조사 결과 구석기인의 경제 활동 영역이 단순한 수렵과 채집뿐만 아니라 해양 자원 활용까지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며, 내륙이나 소하천 중심으로 일려진 이들의 생활 무대가 섬까지 펴져 있음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헌종 교수(목포대 고고인류학과)는 "그 동안 섬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된 적이 없는데 압해도에서 이처럼 대규모 유적이 발견된 것은 주목할만한 성과로 서남해 여러 도서에서도 구석기 유물 발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